

「2022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신청 제출양식

1 신청자 정보

| | | | |
|-------|---------------|------|--------------------|
| 이름 | 김하원 | 참가경로 | 편시스템 |
| 학과(부) | 정보사회학과 | 학번 | 20200581 |
| 휴대폰 | 010-3876-3968 | 이메일 | lotushw@naaver.com |

2 아이디어 기획서

아이디어명 : 너와나 같이[가치] 수업

■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017년 강서구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큰 논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학생을 둔 부모들이 무릎을 꿇으며 건립을 요구하는 사진이 크게 이슈가 되어 수면 위로 해당 문제가 떠오른 사건이다. 강서구 가양동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서진학교’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몇 차례 주민토론회가 시행되기도 했다. 같은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벌어진 논쟁으로 인해 더욱 눈길이 갔다.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고 나와 있다.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헌법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장애 청소년들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분쟁과 같은 일들로 인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울 데이터 열린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동별) 통계(2021년)’에 따르면, 자치구별 0~19세 장애인 인구수는 강서구가 28,54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노원구가 26,904명, 은평구가 21,756명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다. 2021년 기준 최대 약 3만명의 청소년부터 최소 5.6천명의 청소년들이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구 0~19세 장애인인구수

| | |
|-----|--------|
| 강서구 | 28,546 |
| 노원구 | 26,904 |
| 은평구 | 21,756 |
| 중랑구 | 20,357 |
| 송파구 | 20,356 |
| 관악구 | 20,211 |
| 강동구 | 18,614 |
| 구로구 | 18,374 |
| 양천구 | 17,525 |
| 강북구 | 17,3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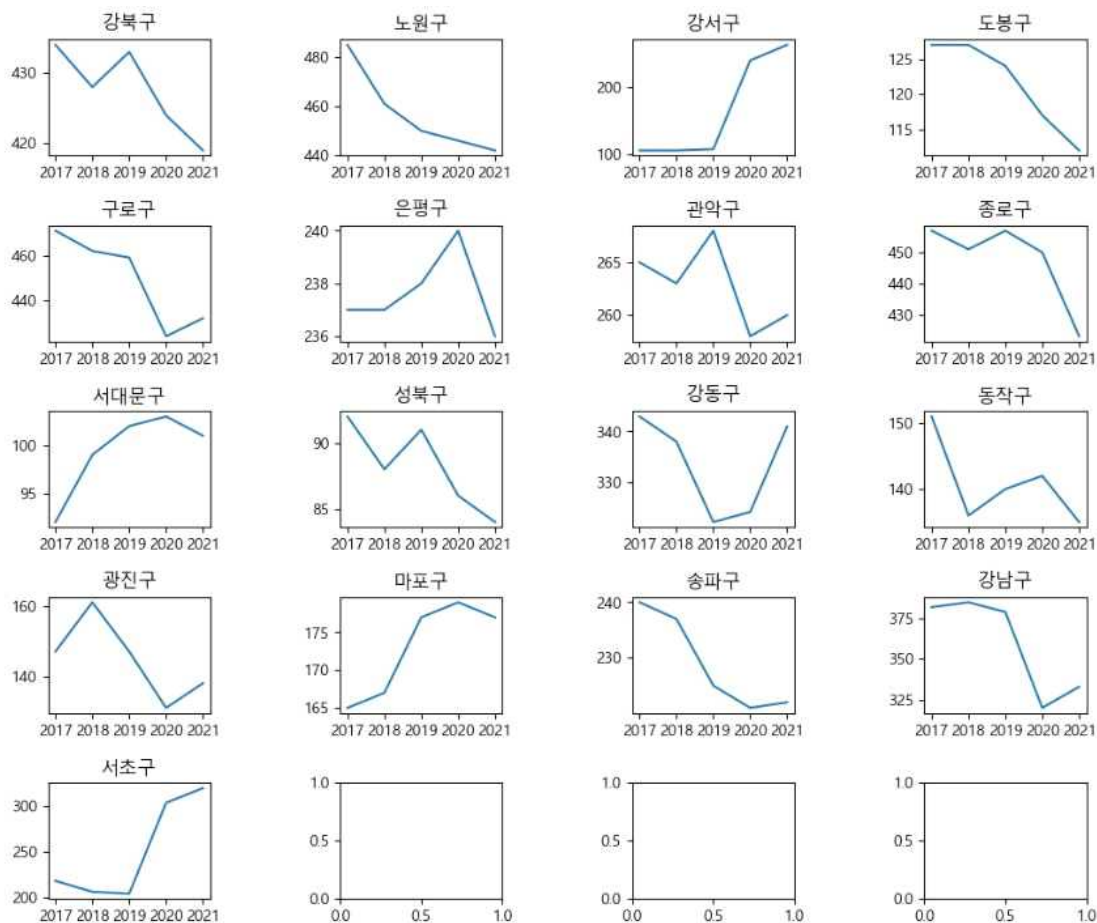
| | |
|------|--------|
| 성북구 | 17,382 |
| 동대문구 | 15,518 |
| 도봉구 | 15,300 |
| 강남구 | 15,182 |
| 영등포구 | 14,495 |
| 동작구 | 14,417 |
| 마포구 | 12,945 |
| 서대문구 | 12,311 |
| 광진구 | 12,253 |
| 금천구 | 11,458 |
| 성동구 | 11,284 |
| 서초구 | 10,291 |
| 용산구 | 7,686 |
| 종로구 | 5,929 |
| 중구 | 5,634 |

이렇게 도출된 0~19세 장애인들의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데이터 열린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구별) 통계(2021)’ 중 0~19세의 인구를 가져와 청소년 장애인들의 자치구별 비중을 알아보았다. 2021년 기준 청소년 장애인들은 자치구별 전체 0~19세에서 많게는 약 6%부터 적게는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100명의 0~19세 청소년들 중에 많게는 5명은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의미로, 적은 수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 자치구 | 0~19세 인구수 | 0~19세 장애인인구수 | 장애인인구수 비중 |
|------|-----------|--------------|-------------|
| 강북구 | 299,182 | 17,395 | 0.058141867 |
| 노원구 | 510,956 | 26,904 | 0.05265424 |
| 중랑구 | 387,350 | 20,357 | 0.052554537 |
| 강서구 | 574,315 | 28,546 | 0.04970443 |
| 금천구 | 230,811 | 11,458 | 0.049642348 |
| 도봉구 | 317,366 | 15,300 | 0.048209323 |
| 구로구 | 396,754 | 18,374 | 0.046310812 |
| 동대문구 | 337,400 | 15,518 | 0.045992887 |
| 중구 | 122,499 | 5,634 | 0.045992212 |
| 은평구 | 473,307 | 21,756 | 0.045965938 |
| 관악구 | 485,699 | 20,211 | 0.041612192 |
| 종로구 | 144,683 | 5,929 | 0.040979244 |
| 서대문구 | 304,819 | 12,311 | 0.040387902 |
| 성북구 | 430,528 | 17,382 | 0.040373681 |
| 강동구 | 462,664 | 18,614 | 0.04023222 |
| 성동구 | 285,990 | 11,284 | 0.039455925 |
| 양천구 | 447,302 | 17,525 | 0.0391793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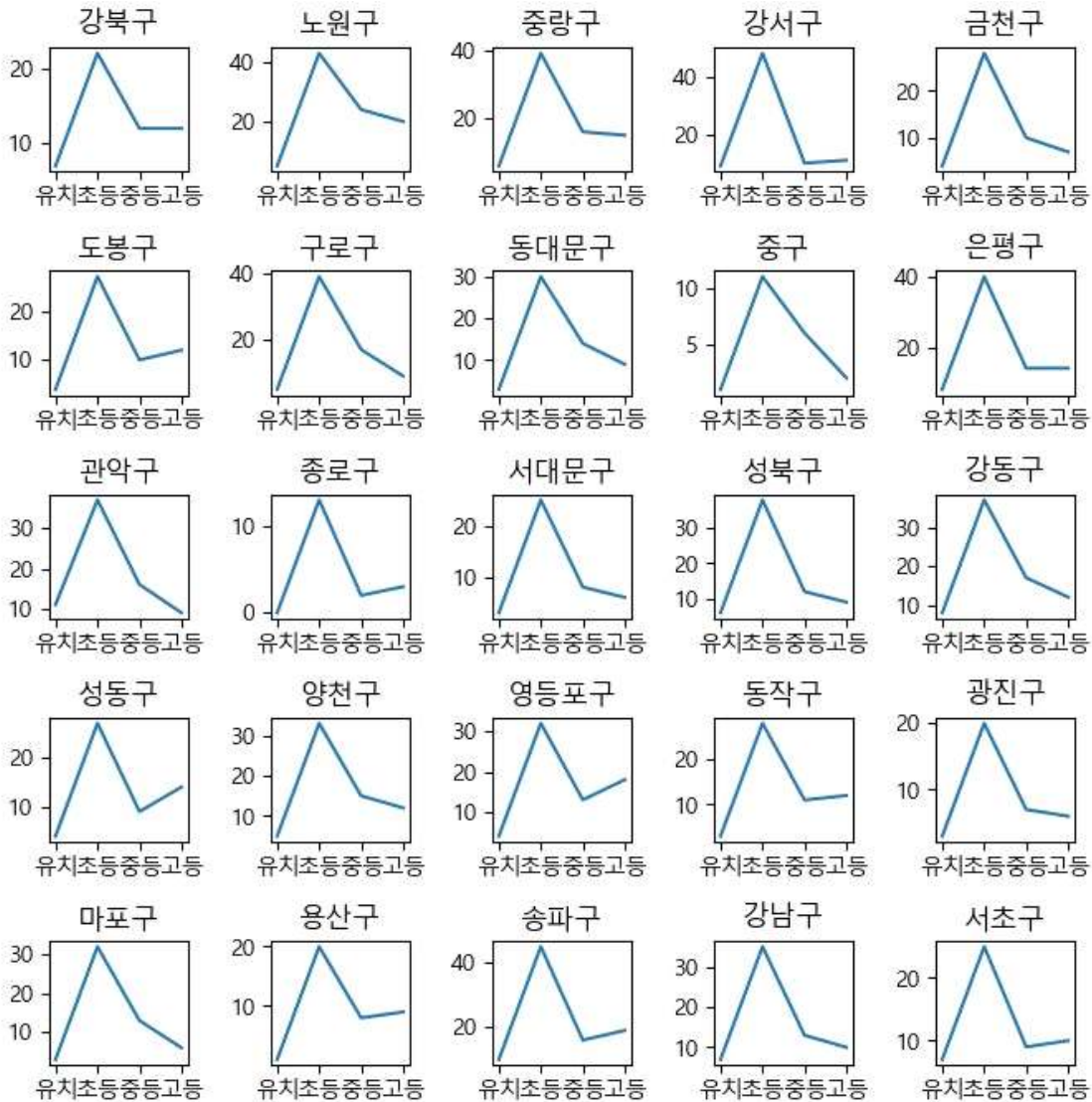
| | | | |
|------|---------|--------|-------------|
| 영등포구 | 376,837 | 14,495 | 0.038464907 |
| 동작구 | 385,483 | 14,417 | 0.037399833 |
| 광진구 | 339,996 | 12,253 | 0.036038659 |
| 마포구 | 368,905 | 12,945 | 0.035090335 |
| 용산구 | 222,953 | 7,686 | 0.034473633 |
| 송파구 | 658,338 | 20,356 | 0.030920287 |
| 강남구 | 533,042 | 15,182 | 0.028481808 |
| 서초구 | 412,279 | 10,291 | 0.024961252 |

서울시의 자치구별 장애 청소년들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법에 의해서 각 상황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장애 청소년 및 그들을 보호하는 부양자들에 따르면, 장애 청소년들만 모아놓은 특수학교보다,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며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한다.(이수연, 2011) 실제로 ‘서울 데이터 열린광장’에서 제공하는 ‘특수학교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알아보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치구별 특수학교의 학생 수를 보면, 특수학교가 있는 17개의 자치구 중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치구의 특수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 학생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그리고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은 장애 자녀를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진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수연, 2011)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2021학년도 서울 특수교육기관 현황’의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 장애 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비해, 중등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기준, 각 구별로 설치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의 수를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초등학교~중학교 사이에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서울시 장애 청소년들이 비장애 청소년들에 비해 교육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등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이 급감하는 것을 토대로,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아이디어 기획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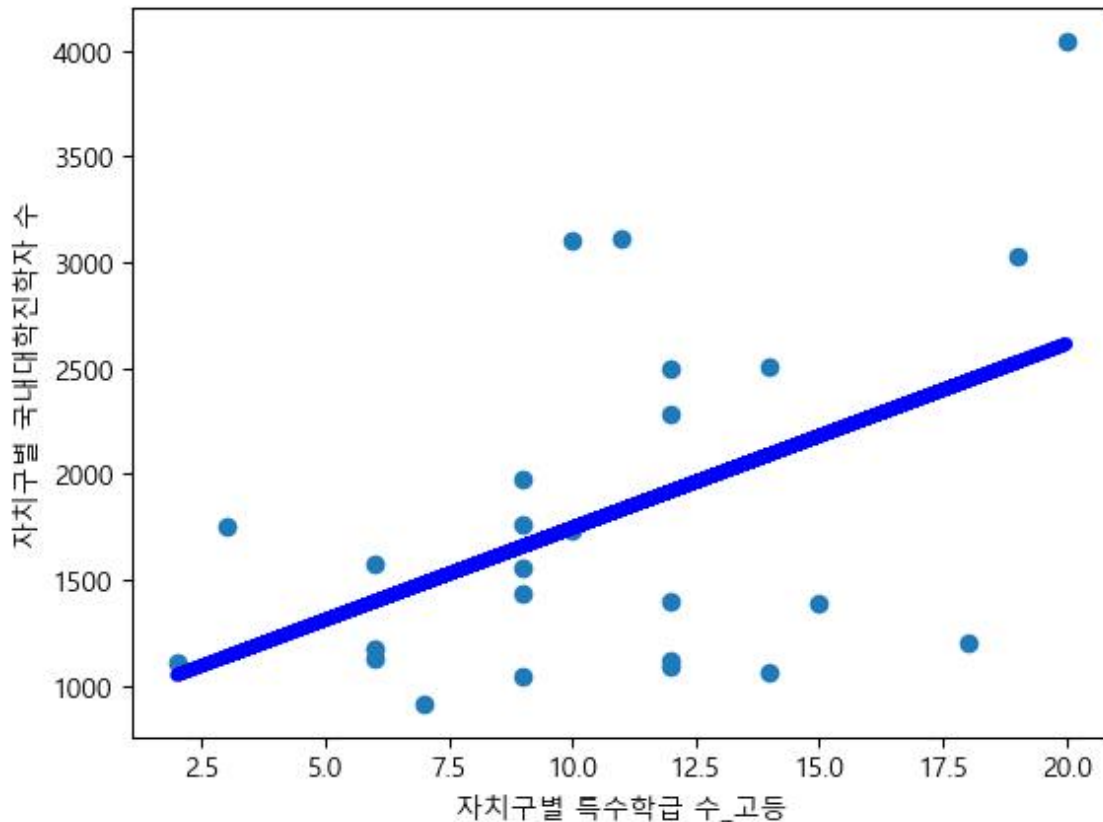
〈아이디어 기획〉

앞서 작성한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교내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의 접촉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 ‘너와나 같이(가치) 수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기획을 하던 초반엔 유독 서울시 중고등학교에서 적은 특수학급을 보고 입시와 관련된 교육기관

이 될수록 적은 특수학급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예상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국내대학진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필요성에서 활용한 자치구별 특수학급 수 중 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별 입학 및 졸업 후 상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대학진학자 수 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2021년 기준, 자치구별 고등학교에서 설치된 특수학급의 수가 많을수록, 국내대학의 진학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도출했다. R제곱은 0.225 정도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두 변수 모두 유의수준은 0.05 미만이었다.)

〈아이디어명〉

이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특수학급의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 간의 접촉이 비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 결과로 비장애 학생들이 직접 장애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기획해 보고,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볼 수 있는 ‘너와나 같이(가치) 수업’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았다.

〈아이디어 의의〉

‘너와나 같이(가치) 수업’은 비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장애와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둔다. ‘너와나 같이(가치) 수업’은 비장애 학생들의 수업 일정 중에 자율학습 시간이나 방과후 학습을 활용하여, 특수학급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몇 주에 걸쳐 각 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학생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비장애 학생들이 직접 그들을 위해 수업을 기획해보고 실습하는 수업이다.

〈아이디어 진행과정-핵심내용〉

1.고등학교 및 신청자 선정

특수학급이 존재하는 고등학교들 중에 대표학교를 몇군데 선정하여 ‘너와나 같이(가치) 수업’을 우선 진행해본다. 교내에서 신청자를 받아 하나의 팀으로 묶어, 자율학습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몇 주간 신청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때 수업은 특수학급을 담당하시는 특수학급담임선생님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

2.기초 교육과 피드백

그리고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에 대한 기초 교육이 마무리되면, 교내 특수학급에 다니는 각 학생의 장애명, 장애특징, 필요한 교육 및 정보 등에 대해 배운다. 지적 장애를 지닌 학생인 경우 지적 수준에 맞는 수업을 기획할 것을 주의해주고,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지닌 학생이 존재할 경우, 그에 맞는 학습 보조 도구를 준비할 것을 일러준다. 수업을 기획하며 특수학급 담임선생님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하며, 실제 수업 실습 전 담임선생님 앞에서 수업을 시연하며 최종 수업을 준비한다.

3.실제 수업 진행

실제 수업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을 활용하여, 비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직접 들어가 자신들이 기획한 수업을 시연해본다. 이때 비장애 학생들만 본 수업에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선생님을 포함하여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어야 한다. 이 수업 과정을 통해 비장애 학생들이 좀 더 특수학급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겪어보고, 비장애 학생들 중 교육 관련 진로를 갖고 있다면, 이후 대학 입학이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인식 변화 및 만족도 조사

모든 수업이 끝난 후 비장애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수업 준비 및 진행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을 통해 마무리한다.

■ 기존 [또는 유사한] 사례와 차별성

‘너와나 같이(가치) 수업’은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수업을 준비하는 진행하는 것에 차별성을 갖는다. 교내에서 비장애 학생들 간의 모의재판, 토론회, 수업 및 보고서 기획 등과 같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비장애 학생들과의 접촉이 기대하는 것이 힘들었다. 교내 활동 시 장애 학생들의 참여가 힘들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비장애와 장애 학생들 간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본 수업은 그저 일차원적으로 비장애 학생들의 봉사 정신만을 강조하는 활동이 아니다. 비장애 학생들 역시 수업을 위한 교육을 듣고, 수업을 기획하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스펙을 쌓을 수 있다. 단순한 일반 수업을 기획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더 고려하고 특수학급 선생님의 지속적인 지도와 피드백 등이 비장애학생들에게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봉사활동과 차별성을 지닌다.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너와나 같이(가치) 수업’을 통해 비장애 청소년들의 장애 관련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이진수, 2009) 본 아이디어도 비장애 학생들에게 장애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본 ‘너와나 같이(가치)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이 실제로 교육관련 학과나 대학에 진학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는 고등학교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더 넓고 다양한 사회성을 제공하여 이후에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인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본 아이디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서울시를 넘어서서 전 지역에서 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의 간접적인 경험을 비장애 학생들은 학창시절부터 겪는 것이므로, 이후에 특수교육에 관한 인력으로 성장할 때 전문적인 인력으로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 활용데이터 및 참고문헌 출처 등

<서울시 데이터 열린광장>

-‘서울시 장애인 현황(장애유형별/동별) 통계(2021)’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구별) 통계(2021)’

-‘특수학교 통계’

<서울시교육청>

-‘2021학년도 서울 특수교육기관 현황’

<교육통계서비스>

-‘행정구역별 입학 및 졸업 후 상황(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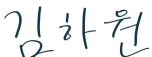
이수연(2011).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서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실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이진수(2009).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청소년의 인식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 ■ [자유롭게 작성] |
|-------------|
| 비고 |
| |
| 비고 |

※ 도표, 이미지, 영상 등 활용 가능하고,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2022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p>1. 정보 수집·이용 범위와 사용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이용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상)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용목적 : 경진대회 참가신청 및 참가자 관리, 수상자 선정, 후속지원, 자료제출, 변경사항 관리 등 경진대회 운영·관리 목적 (제공받는 자 : 경진대회 주최/주관 기관)■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최대5년) 보유 <p>2.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접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3.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습니다.</p> <p>4. 『2022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신청 및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련한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고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참가 서약서 | <p>상기 본인은 『2022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출품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본 경진대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2. 출품작이 이미 발표된 작품이거나, 타 공모전에 수상한 작품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수상을 취소하며, 상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다.3.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4. 본 경진대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동의한다. <p>참가서약서 및 신청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p>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 년 01월 13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자 확인 : 김하원 </p> <p>숭실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귀하</p> | |

「2022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아이디어(출품작) 제3자 공개·공유 동의서

1. 아이디어 제3자 공개·공유 목적

- 응모된 아이디어(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포함)에 대한 평가와 경진대회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한 업무 수행

2. 아이디어 공개·공유 항목

- 응모된 아이디어(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포함)의 기능, 사용하는 데이터 종류, 효과성 등

3. 아이디어 보유·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진대회 결과 최종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수상자의 사후관리나 중앙의 경진대회에 추천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디어(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포함)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아이디어 제3자 공개·공유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제출한 기획 아이디어(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포함)의 공개·공유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아이디어(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포함)의 공개·공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경진대회 참가신청 불가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본인 아이디어의 제3자 공개·공유에 동의합니다.

2022 년 01월 13일

지원자 확인 : 김하원

김하원

승실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귀하